

<서 평>

최초의 정감록 영역본, 그리고 한국 예언서 연구의 난제들

- John Jorgensen, 2018 *The Foresight of Dark Knowing*, University of
Hawaii Press -

한 승 훈*

1. 머리말
2. 해제의 구성과 의의
3. “鄭鑑錄”의 범위
4. 판본의 문제
5. 근대 출판본들과 전근대 파편들
6. 맺음말

1. 머리말

모두가 잘 알고 있다고 믿지만 거의 아무것도 알려져 있지 않다. 한국학에서 『鄭鑑錄』은 그런 텍스트다. 우리는 李氏 王朝의 멸망을 예언한 이 책이 18세기 이래 조선에서 반왕조 운동과 이주 운동을 선동하는 데 이용되었고, 근대 이후에는 新宗教運動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이 책이 정확히 언제, 누구에 의해, 무엇을 위해 작성되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연구자들 사이에서마저도 정확히 어떤 텍스트를 ‘鄭鑑錄’이라고 불러야 하는지에

*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박사수료.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다는 것이다. 흔히 ‘鄭鑑錄 信仰’ 혹은 ‘鄭鑑錄 思想’이라는 범주에서 다루어지는 조선후기의 다양하고 이질적인 예언 문헌들 사이의 관계 또한 여전히 많은 부분이 의문에 싸여 있다.

다행히도 2000년대 이후 『鄭鑑錄』과 조선후기 圖讖秘記에 대한 각 분야에서의 연구는 양적, 질적으로 상당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김탁은 광범위한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鄭鑑錄』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예언사상에 대한 사료와 기존 연구를 종합하였다.¹⁾ 한편 백승중은 『鄭鑑錄』이 최초로 언급된 문헌기록을 근거로 이 책이 1739년 경 서북 지역의 術士들에 의해 출현, 보급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식민지시기 출판본들에 대한 본격적인 서지학적 분석을 수행하였다.²⁾ 출판본에 대한 연구는 1910년대 在朝 日本人들에 의해 수집된 異本들과 1920년대 간행본들을 검토한 박해선에 의해 한층 심화되었다.³⁾ 텍스트에 대한 내적 분석 또한 진전되어 『鄭鑑錄』에 표현된 세계관이나 그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인 十勝地에 대한 연구 또한 다수 제출되었다.⁴⁾ 뿐만 아니라 조선후기의 變亂 등 민중운동 연구에서도 현행본 『鄭鑑錄』은 중요한 비교 자료가 되고 있다.⁵⁾

이런 상황에서 John Jorgensen의 *The Foresight of Dark Knowing*의 발간은 대단히 고무적이다. 이 책은 『鄭鑑錄』의 영역본으로 한국의 예언 문헌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서구어 번역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현대 한국어 번역들을 능가하는 규모의 작업이다.⁶⁾ 동아시아 불교와 한국 신종교 연구의 전문가인 역

1) 김탁, 2005 『정감록: 새 세상을 꿈꾸는 민중들의 예언서』, 살림; 2016 『조선의 예언사상』 上, 下, 북코리아.

2) 백승중, 2006 『한국의 예언 문화사』, 푸른역사.

3) 박해선, 2018 「식민지 조선과 정감록」 『일본근대학연구』 59.

4) 윤병철, 2005 「정감록의 사회변혁 논리와 사회적 의의」 『정신문화연구』 28-1; 최낙기, 2011 「『鄭鑑錄』에 나타난 풍수사상 연구」 『어문논집』 48; 양승목, 2016 「조선후기 십승지론의 전개와 ‘살 곳 찾기’의 향방」 『한국한문학연구』 63.

5) 김우철, 2012 「조선후기 변란에서의 鄭氏 眞人 수용 과정: 『鄭鑑錄』 탄생의 역사적 배경」 『조선시대사학보』 60; 고성훈, 2015 「조선후기 민중사상과 鄭鑑錄의 기능」 『역사민속학』 47.

6) 『정감록』의 대표적인 현대어 번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김수산·이동민, 1981 『鄭鑑錄』, 명문당; 이민수, 1985 『新譯 鄭鑑錄』, 흥신문화사; 양태진, 2013 『정감록: 민족 종교의 모태』, 예나루. 김수산과 이동민의 것은 12편, 이민수의 것은 23편, 양태진의 것은 40편의 번역 텍스트를 각각 포함하고 있다. 영역본에 포함된 문서들은 모두 32편이다.

자는 완성도 높은 번역과 함께 한국종교의 예언전통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⁷⁾

이 글은 이 기념비적인 저작을 소개함과 동시에, 『鄭鑑錄』으로 대표되는 한국 예언서들에 대한 연구에서 제기되어 온 문제들을 제시하고 여기에 이 책이 어떤 방식으로 답하고 있는지를 다루려 한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전근대 한국 예언서 연구에 도입되어야 할 관점 몇 가지가 제시될 것이다.

2. 해제의 구성과 의의

제목인 *The Foresight of Dark Knowing*은 이 책에 포함된 秘訣 가운데 하나인 「玄知先見」(텍스트 28)의 번역이기도 하다. 『鄭鑑錄』이라는 책명이 부제에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독특한데, 이것은 이 책이 포함된 기획인 하와이대학 출판부(University of Hawaii Press)의 한국고전총서(Korean Classics Library)의 공통적인 특징이다.⁸⁾ 이 시리즈에 포함된 책들은 모두 역자의 해제인 1부와 원전의 번역인 2부로 이루어져 있다. 200페이지에 달하는 이 책의 1부는 2부의 두 배에 해당하는 분량이지만, 일반적인 ‘고전 번역’의 해제가 포함하고 있는 저자의 전기나, 텍스트의 출현 배경이 되는 특정한 시기에 대한 서술은 없다. 대신 『鄭鑑錄』의 역사적 배경으로서 고대로부터 최근에 이르는 한국종교문화의 예언 전통을 통시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런 독특한 구성이 된 가장 큰 이유는, 『鄭鑑錄』의 저자나 成書 연대가 불분명한 탓이었을 것이다.

역자는 『鄭鑑錄』에 포함된 텍스트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
- 7) John Jorgensen, 2018 *The Foresight of Dark Knowing: Chŏng Kam Nok and Insurrectionary Prognostication in Pre-Modern Korea*, University of Hawaii Press.
- 8) 일례로 같은 역자의 『禪家龜鑑』 번역서의 제목은 *A Handbook of Korean Zen Practice: A Mirror on the Sŏn School of Buddhism* 이고, Sem Vermersch에 의한 『高麗圖經』 번역서의 제목은 *A Chinese Traveler in Medieval Korea: Xu Jing's Illustrated Account of the Xuanhe Embassy to Koryŏ* 이다.

그 (필사본)들은 한결같이 이씨 왕조가 일반적으로 정씨 성을 가진 이른바 眞人(眞人)에 의해 이끌어지는 새로운 왕조로 바뀔 것을 예견한다고 주장한다. 그것들은 새 왕조 하에서의 새롭고, 유토피아적인 정치 질서의 등장할 것이며, 그에 앞서 많은 재난, 특히 전쟁과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한다. 그 텍스트들 가운데 몇몇은 열 군데의 뛰어난 도피의 장소들을 지적하며, 때로는 그런 선택을 한 풍수적 이유들을 대기도 한다. 그들은 초기 중국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여러 가지 예지의 기술들을 담고 있어, 어떤 것은 풍수설을 포함하는 한편, 다른 것들은 순환론, 징조, 수비학, 그리고 다른 형태의 예측들을 사용한다. 예지의 글로서, 그것들은 전형적으로 노스트라다무스의 것으로 여겨지는 작품들의 언어와도 다르지 않은 모호한 언어들로 제시된다.⁹⁾

이처럼 역자의 기본적인 관점은 정감록을 단일한 텍스트가 아닌 문서군(corpus)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문서는 風水, 圖讖, 易學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전통을 반영하고 있다. 이들 예언의 테크닉들은 모두 고대 중국으로부터 비롯하는 것이므로, 그는 이들 각각에 대한 先秦시대 이래의 略史와 한국에서의 수용사를 서술하고 있다. 특히 풍수가 신라 말 이후 주로 禪僧들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이것이 後三國의 통일 과정에서 圖讖 전통과 더불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강조된다.

고려시대에 대한 서술은 주로 道說의 이름을 가탁한 지리서, 그리고 ‘十八子’ 혹은 ‘木子’(李)의 受命에 대한 예언 등이 南京遷都說이나 裨補寺刹의 건립, 그리고 李資謙의 찬탈시도와 같은 정치적 사건들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에 할애되어 있다. 또한 조선왕조 건국 초기 도참의 활용과 이후 연이은 도참서의 금지조치에 의해 주류 정치담론에서 예언전통이 배제되는 과정을 왕대별로 다루고 있다. 널리 알려진 대로 도참이 반란의 논리로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宣祖代 鄭汝立 사건 이후다. 정씨에 의해 왕조교체가 이루어질 것이며, 새로운 王都는 鷄龍山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 이 사건 이후로 본격적으로 부상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17세기 이후 變亂 기록들에서는 아직 『鄭鑑錄』이라는 제목의 책은 언급되지 않으나, 반란의 주모자로서의 메시아적 인물인 眞人(眞人)이 거론되는 등 그 맹아적인 요소들이 발견된다. 그리고 18세기 이후 동학 봉기에 이르는 시기까지 빈번하게

9) Jorgensen, op. cit., p.4.

발생한 掛書나 逆謀 사건들에서는 『鄭鑑錄』, 『道誼秘記』, 『南師古秘訣』 등의 텍스트가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 해제는 이들 각각의 사건을 충실하게 서술하며, 現行本 예언서들에 포함된 구절들과의 연관성을 찾아내려 시도하고 있다. 나아가 『鄭鑑錄』이 식민지 시대 이후 독립운동 및 신종교운동과 예언전통과 어떻게 관련되었는지, 해방 이후 정치와 대중문화에서의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또한 폭넓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상과 같은 통시적인 설명 방식은 김탁, 백승중 등에 의해 이루어진 『鄭鑑錄』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 그리고 고성훈, 김우철 등에 의해 진행된 조선후기 變亂 연구의 성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Jorgensen의 글에서는 세 가지 점에서 진전된 점이 보인다. 첫째는 그가 明末清初 臺灣의 鄭氏王朝에 대한 소문이 정씨 진인에 대한 전승과 결합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였다는 점이다.¹⁰⁾ 새로운 왕조가 정씨에 의해서 건립될 것이라는 예언은 16세기 자료에서부터 나타나지만, 그 진인이 바다 너머에서 조선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海島起兵說은 18세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대두된다는 점에서 이 주장에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¹¹⁾

둘째는 식민지 시대 이후 『鄭鑑錄』류 문서의 결집 및 출판 과정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서두에서 언급하였듯, 『鄭鑑錄』의 근대적 출판 과정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시도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성과로 1923년의 출판본인 細井肇 編 『鄭鑑錄』이 1910년대 초 鮎貝房之進이 편집한 판본을 저본으로 하였다는 백승중의 연구가 있다.¹²⁾ Jorgensen은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今西龍의 『鄭鑑錄』 해제를 바탕으로, 이와는 별개의 판본들 또한 일본인 장서가들에 의해 수집되고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¹³⁾

10) 이 주장은 정응수가 일본측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Jorgensen은 정응수를 인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조선측 자료만으로 유사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정응수, 2018 『조선의 구세주 '정도령'이 된 타이완의 정성공 3대』 『일본문화학보』 76 참조.

11) 이와는 달리 고성훈은 변란과 예언에 등장하는 海島起兵說의 논리를 한국 내적인 상황, 특히 海島에 거주하던 流民과 무장집단의 존재와 관련지어서 설명한 바 있다. 고성훈, 1997 『朝鮮後期 '海島起兵說' 관련 變亂의 추이와 성격』 『조선시대사학보』 3. 필자는 해도기병설이 정씨진인설과 결합된 것은, 국제정세로부터 비롯한 해외의 정씨 왕조에 대한 제한된 정보와 고성훈이 지적한 국내의 물적 조건이 조응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12) 백승중, 앞의 책, 231-260면; 細井肇, 1923 『鄭鑑錄』, 自由討究社.

마지막으로 이 해제의 가장 독창적인 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현행본 『鄭鑑錄』의 일부가 근대 이후에 수정, 가필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근대적 출판을 통한 텍스트의 고정(固定)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예언 텍스트들이 유동적인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은 다양한 異本의 존재를 통해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Jorgensen은 보다 구체적으로 『慶州李先生家藏訣』, 『西溪李先生家藏訣』, 『土亭家藏訣』, 『李土亭秘訣』 등의 내용 일부가 19세기 말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해당 구절은 1905년에서 1910년 사이에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¹⁴⁾ 이것은 논쟁적인 주제이며 아직 추측의 단계이지만, 진지하게 검토할 가치가 있는 문제제기다.

3. “鄭鑑錄”의 범위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역자는 『鄭鑑錄』을 광범위한 전근대 한국의 예언 문서를 汎稱하는 것으로 보고, 고대 동아시아의 다양한 예지 전통과 한국사의 정치적 사건들을 이와 결부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鄭鑑錄』에 대한 유일한 정의가 아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鄭鑑錄』은 이씨 왕조의 멸망과 정씨 왕조의 등장에 대한 이씨와 정씨의 문답으로 이루어진 특정한 형태의 텍스트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그런데 『鄭鑑錄』이라는 제목이 붙은 현행본 거의 모두는 그 뿐만이 아니라, 道詵, 無學, 鄭礪, 南師古, 李之菡 등의 이름을 가탁한 이질적인 텍스트들의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대해 김탁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다.

13) Jorgensen, op. cit., p.184. 今西가 거론한 것은 幣原坦과 萩野由之가 수집한 두 판본이다 (Jorgensen은 萩原라는 이름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두 사람의 이름을 혼동한 오류로 보인다). 이 가운데 그가 분석하고 있는 것은 幣原本으로, 이 판본은 현재 일본 東洋文庫에 소장되어 있다(Ⅶ-3-132). 이 판본을 비롯한 東洋文庫 소장 『鄭鑑錄』들에 대한 서지사항은 박해선, 앞의 책, 299-301면 참조.

14) Jorgensen, op. cit., pp.183-184. 유사한 논의는 번역문의 역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넓은 의미의 『정감록』은 「감결」 등 여러 비결을 망라하는 책이며, 좁은 의미의 『정감록』은 「감결」만을 가리킨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아마도 『정감록』을 편찬한 사람들이 「감결」을 중심으로 삼고 당대에 유포되던 여러 비결서들을 합쳐 ‘정감록’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짐작됩니다. 애초에는 몇 개의 비결서만을 모았던 책이었는데, 세월이 흐르고 시대적 상황이 바뀌면서 또 다른 비결서들이 더욱 보태져서 이른바 『정감록』이라는 책으로 집대성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¹⁵⁾

Jorgensen은 이 가운데 명백히 ‘넓은 의미’를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근대 이후의 용법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적절하다. 1920년대 이후의 출판본들, 현대어로 번역된 해방 이후의 번역본들, 그리고 “鄭鑑錄 思想”을 다루는 현대의 연구자들 절대 다수가 이 관점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근대의 상황, 그리고 출판본 이전의 필사본들을 고려한다면 사정이 달라진다. 『鄭鑑錄』이라는 제목이 문헌기록에 등장하는 18세기 초 이래로 이 책은 제목이 알려진 여러 다른 예언서들 가운데 하나로만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19세기 말 이후에 유행하던 “秘記”들의 내용에 대한 기록을 남긴 黃玟과 鶴谷誠隆도 당시에 최소한 두 종류의 유력한 예언서들이 존재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어떤 기록도 “鄭鑑錄”이라는 제목이 그들 모두를 통칭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¹⁶⁾ 비슷한 시기 언론 기사에서도 『鄭鑑錄』은 대표적인 예언서로 언급되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들 가운데 하나로만 묘사된다.¹⁷⁾ 그러나 늦어도 1910년대에 이르면, “鄭鑑錄”이라는 제목이 예언 문헌을 대표하는 이름이 되었고, 이것이 많은 출판본들의 제목으로 『鄭鑑錄』이 선택되었던 배경이었을 것이다.

15) 김탁, 2005 『정감록: 새 세상을 꿈꾸는 민중들의 예언서』, 살림, 37면.

16) 『梧下記聞』首筆(1894년) 5월 12일(김종익 옮김, 2016 『오동나무 아래에서 역사를 기록하다: 황현이 본 동학농민전쟁』, 역사비평사, 220-223면); 鶴谷誠隆, 1908 『朝鮮의宗教』, 宗教研究會, 88-102면.

17) 『皇城新聞』大韓光武3년(1899) 12월 19일 「鄭鑑錄不足信」 “我東에도 自羅麗로 入于我韓 訶야 道說秘記니 土亭秘訣이니 魏淸學秘訣이니 種種 信疑가 不無호되 一種隱怪한 文字가 別有호니 非經非緯오 非圖非讖이오 非術非數오 非卜非筮로되 足히 人心을 狂亂케 호며 世道를 衰亡케 하는 禍害를 釀出하는 者를 名曰 鄭勘錄이라.” 그 외 근대 신문들의 관련 기사들에 대해서는 김탁, 2016 『조선의 예언사상』 下, 북코리아, 526-527면.

만약 “鄭鑑錄”에 대한 ‘넓은 의미’의 정의가 근대 이후의 산물이라면, 전근대 까지를 포괄하는 연구에서는 ‘좁은 의미’를 취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실제로 1787년의 『承政院日記』 기사에 실린 正祖와 金鍾秀의 대화에 의하면, 당시 『鄭鑑錄』은 문답 형식으로 된 특정한 텍스트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음이 명백하다.

임금이 말했다. “그건 분명 『鄭鑑錄』일 것이다.”

鍾秀가 말했다. “과연 『鄭鑑錄』이었습니까다만, ‘鑑’자가 아니라, 勘亂의 ‘勘’자였습니다.”
(중략)

임금이 말했다. “그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문답이더냐?”

鍾秀가 말했다. “李泌과 鄭勘의 문답이었습니다.”¹⁸⁾

‘좁은 의미’를 택함으로써 우리는 현행본에 포함되어 있는 이질적인 문서들을 별개의 독립적인 텍스트들로 다룰 수 있게 된다. Jorgensen의 번역서를 예로 든다면, 그가 번역한 32개의 텍스트 가운데 1번과 26번만이 ‘좁은 의미’의 『鄭鑑錄』에 해당한다.¹⁹⁾ 이 둘은 모두 조선왕조의 선조인 이씨 형제들과 장차 도래할 정씨 왕조의 선조인 鄭鑑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²⁰⁾ 양자는 등장인물과 상황 설정, 대략적인 구성이 일치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단순한 校勘만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차이는 후반부로 갈수록 두드러지는데, 텍스트 1의 말미에는 본문의 十勝地 목록과는 전혀 다른 두 번째 목록이 추가되어 있다. 반면 텍스트 26에는 그 대신 정씨의 海島 출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예언이 포함되어 있으며, 『鄭鑑錄』과는 관련이 없는 李成桂와 無學의 대화가 마치 같은 글인 것처럼 이어져 있다.

18) 『承政院日記』 정조 11년(1787) 7월 15일 “上曰 此必鄭鑑錄也 鍾秀曰 果是鄭鑑錄 而但非鑑字 卽勘亂之勘字矣 (중략) 上曰 此冊首末 皆問答乎 鍾秀曰 卽李泌與鄭勘問答者也”

19) 이후 ‘좁은 의미’의 鄭鑑錄과 같은 개별 문서를 지칭할 때는 소괄호(『』)를, 필사본 또는 출판본의 제목에 대해서는 대괄호(『』)를 사용하겠다.

20) 등장인물의 이름은 판본에 따라 차이가 심한데, 이씨 형제는 일반적으로 李泌(또는 李沁)와 李淵 두 사람이지만, 종종 李淵이 등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정씨의 이름은 鄭鑑, 鄭堪, 鄭勘 등 다양하게 표기되며, 드물게는 실존인물인 鄭礪으로 되어 있거나 이름을 밝히지 않고 ‘鄭公’이라고만 되어 있는 판본도 존재한다.

현재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문서군(corpus) 전체를 활용한다면, 이들 텍스트에 대한 보다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비교가 가능해진다. 정씨와 이씨의 대화편, 즉 ‘좁은 의미’의 『鄭鑑錄』은 수집 시기가 비교적 분명한 판본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10여 종 이상의 이본이 존재한다.²¹⁾ 이들은 다시 두 가지 계열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번역서에 포함된 두 텍스트는 같은 계열에 속한다. 또한 『鄭鑑錄』과는 별개의 예언서들에 대해서도 제목과 문구에 차이가 나는 수종의 이본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들과의 비교를 통해 텍스트 1에 포함된 ‘두 번째’ 十勝地의 목록이 주로 南師古의 이름을 가탁한 문서들의 그것과 일치한다는 점, 그리고 텍스트 26의 마지막 부분은 다른 필사본들에서는 『無學順字論』, 『太祖問于無學』 등의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인 별개의 문서라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비슷한 방식으로 『鄭鑑錄』 이외의 텍스트들을 ‘세부 장르’들로 구분할 경우, 우리는 전근대 한국의 예언문화에 대해 보다 정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례로 규장각본 『鄭鑑錄』(奎12371)은 Jorgensen의 텍스트 1-4에 해당하는 네 편의 글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제목이 붙어 있지 않은 첫 번째 글(텍스트 1)만이 『鄭鑑錄』이고, 나머지 세 편은 별개의 글이다.²²⁾ 이어지는 『東國歷代氣數陰陽訣』(텍스트 2)과 『歷代王都本宮數』(텍스트 3)는 모두 한국 역대 왕조의 運數를 네 자리의 숫자로 점치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장르’로 간주될 수 있으나, 시대 구분이나 이용하고 있는 체계에는 차이가 있다.²³⁾

주목할 만한 것은 네 편의 글 중 가장 긴 『三韓山林秘記』(텍스트 4)로, 다른 필사본들에서는 義湘의 이름이 가탁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²⁴⁾ 필자는 이 텍스트

21) 동일한 판본을 필사한 경우를 제외하면, 이들 사이에는 오탈자나 부분적인 字句 이상의 차이가 발견된다.

22) 이 『鄭鑑錄』이 바로 흔히 『鑑訣』로 알려진 판본이다. 이 텍스트에 『鑑訣』이라는 제목이 붙은 연유에 대한 백승종의 주장은 다음을 참조할 것. 백승종, 앞의 책, 257-258면.

23) 두 텍스트의 비교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한승훈, 2018 『開闢과 改闢: 조선후기 묵시종 말적 개혁 개념의 18세기적 기원』 『종교와 문화』 34, 234면, 각주 58).

24) 대표적으로 『新羅元曉大師弟子義相大師慈惠尊者秘記』(鶴谷誠隆, 앞의 책, 89-97면), 『元曉子義相杜師秘傳』(『諸家秘說』), 『新曉子義祖師秘傳』(『鑑寅錄』) 등의 제목이 있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필사본인 『徵秘錄』(한古朝19-110)에는 이 글의 내용 일부가 『鄭鑑

가 『鄭鑑錄』 계통의 예언서보다도 오래된 전승을 반영하고 있다는 가설을 가지고 있다. 조선 중기의 문헌인 車天輅의 『五山說林草藁』에 義湘이 썼다고 하는 『山水秘記』가 언급되어 있고, 여기에 현행본과 일치하는 내용이 인용되어 있기 때문이다.²⁵⁾ 만약 이런 문서들을 『鄭鑑錄』의 일부로만 인식한다면 각 텍스트의 독자적인 전승 계열과 상호관계를 식별하기 곤란할 것이다.

바람직한 대안은 물론 ‘좁은 의미’의 『鄭鑑錄』을 비롯한 여러 세부 장르들을 ‘圖讖秘記’ 혹은 ‘예언서’라는 상위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그런 다음 각각에 대한 異本 연구를 하는 것이 각 판본의 선후관계나 변형, 나아가 전승양상을 판단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들 모두를 『鄭鑑錄』으로 통칭하는 ‘넓은 의미’의 정의가 이미 학계와 일반에 정착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 정의 또한 맥락에 따라서는 유용할 수 있다. 근현대 이후 상황에서 『鄭鑑錄』은 하나의 物的 대상으로서, 텍스트라기보다는 아이콘으로서 이용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현대의 정치인이나 종교인이 “정감록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할 때 의미하는 것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연구자는 두 가지 용법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4. 판본의 문제

앞서 간략하게 살펴본 대로, 전근대 한국의 예언서에는 여러 계열이 존재했다. 식민지 시대에는 이미 여러 종류의 상이한 컬렉션들이 수집되거나 제작되었는

錄』 계열 판본에 별도의 구분 없이 삽입되어 있다. 이 텍스트에 대한 분석은 장지연, 2013 「규장각 소장 『秘訣輯錄』(奎 7568) 수록 「三韓山林秘記」 분석」 『인문과학논집』 50. 25) 『大東野乘』 권5, 『五山說林草藁』, “擇都者 若信聽僧言 則稍有延存之望 若鄭姓人出而是非 則傳不五世 篡奪之禍生 歲纔二百 板蕩亂至 慎之慎之” 규장각본의 해당 구절은 다음과 같다. 『三韓山林秘記』, “擇都者 若聽僧言 則稍有存延之望 若鄭姓人是非至 傳不五世 篡奪之禍生 歲纔二百 板蕩之亂至 慎之” 한편 孝宗의 葬地를 결정하는 논의 과정에도 『山水秘記』라는 제목의 책이 인용되었으나(“有事水原 邦內不安”) 이 구절은 『三韓山林秘記』에는 보이지 않는다. 『顯宗改修實錄』 권1, 顯宗 卽位年(1659) 8월 戊午(30일).

데, 같은 부류의 예언서 사이에도 판본 간 차이가 심했다. 그 가운데 Jorgensen이 이용한 저본은 1923년에 東京의 自由討究社에서 발간된 細井肇의 출판본이다. 이 책은 細井의 해제와 활자화된 두 권의 필사본이 합본된 형태였다. 첫 번째 것은 『秘訣輯錄』이라는 제목으로, 현재 규장각에 소장된 같은 제목의 필사본(奎7568)과 일치하는 판본이다. 두 번째 것은 細井가 『秘訣輯錄(擬似稿本)』이라고 제목을 붙여놓은 별개의 필사본이다.²⁶⁾ 이 가운데 첫 번째의 『秘訣輯錄』은 현재까지 가장 널리 이용되어 온 판본이다.²⁷⁾ 세부적으로 보면 이 또한 각각 數種의 예언서 텍스트를 포함하고 있는 9권의 필사본을 편집한 컬렉션으로 Jorgensen의 텍스트 1-25에 해당한다.²⁸⁾ 대부분의 현대 한국어본은 이 부분만을 저본으로 하고 있으며, 연구자들이 주로 다루어온 것도 이 텍스트들이다.

첫 번째 『秘訣輯錄』은 그 편집 시기와 과정을 어느 정도 추적할 수 있는 예언 문서집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백승중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鄭鑑錄』(古1496-30)의 구성과 내용이 이것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이를 『秘訣輯錄』, 나아가 “현대판 『鄭鑑錄』”의 모체로 보았다. 이 판본의 서두에는 1913년에 작성된 鮎貝房之進의 해제가 첨부되어 있어, 백승중은 이를 ‘鮎貝本’이라고 불렀다.²⁹⁾ 그리고 이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은 부산대학교 소장본(OMO 3-10 4)을

26) 다소 부적절하게도, Jorgensen은 이 두 번째 필사본의 제목을 “forged manuscripts”로 번역하고 있다. 細井의 서문에 의하면 이것은 1920-1922년 사이에 수집된 것으로, 맥락상 ‘가짜’라는 의미보다는 비교대상이 되는 ‘유사한’ 판본이라는 의미로 붙은 제목인 듯하다. 실제로 細井는 자신이 일본어로 번역한 텍스트에 擬似稿本과 비교하는 내용의 주해를 포함해 두었다. 細井, 앞의 책 『鄭鑑錄の檢討』, 44-45면.

27) 1923년에 발간된 세 편의 출판본 가운데 金用柱의 『鄭鑑錄』은 7권의 필사본을 집성, 활자화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秘訣輯錄』은 전체가 『鑑訣』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또한 玄丙周의 『批難 鄭鑑錄眞本』은 『秘訣輯錄』의 일부 텍스트를 각각에 대한 評說과 함께 편집한 형태다.

28) 이 9권의 책은 현재 모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奎12371-奎12379). 이들 각각의 서두에는 근대 이후의 것으로 보이는 필사자의 간략한 해설이 붙어 있어, 별도의 ‘원본’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호소이는 이 가운데 『鄭鑑錄』(奎12371)에 포함되어 있는 네 편의 글에 대해서는 일본어 번역 또한 수록해 놓았다. 이 번역문은 이후 1924년에 별도로 인쇄되어 조선총독부를 비롯한 조선인 거주지에 통치 자료로 배포되었다. 그 가운데 한 부는 東京大 도서관 水戶徳川林制資料에 소장되어 있다.

29) 백승중, 앞의 책, 254-259면. 백승중 자신은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이 판본의 말미에는

비교적 최근에 복사한 것으로 밝혀졌다.³⁰⁾

그리고 박해선의 조사에 의하면 이와 동일한 판본은 東京大 小倉文庫에서도 2종(L44768-104, L44771-107) 확인된다. 이 두 판본은 서두에 鮎貝의 해제가 붙어 있으며 내용도 완전히 동일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다.³¹⁾ 부산대 소장본과 L44768-104의 여백에는 異本과 비교하는 주석이 기재되어 있으며,³²⁾ 마지막에는 본문에 대한 正誤表가 부착되어 있으나, L44771-107에는 없다. 한편 부산대 소장본에는 주석은 기재되어 있는 반면, 정오표는 없다. 또한 이 주석과 정오표는 규장각 소장 『秘訣輯錄』과 細井의 출판본에는 모두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L44771-107에는 張基라는 인물이 小倉에게 이 책을 2부 복사했음을 보고하는 메모가 부착되어 있다.³³⁾

이상과 같은 점에서 판단할 때, 1910년대 초 鮎貝本은 복제되어 小倉進平, 細井肇, 金用柱 등의 장서가, 연구자들에게 해제와 함께 유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복사본들은 다른 이본들과 함께 ‘교정’되었다. 각 사본에 서로 다른 형태로 추가되어 있는 주석, 정오표, 본문의 오자 수정, 펜으로 된 메모 등이 그 흔적이다. 실제로 현재 남아 있는 전근대 한국의 예언서 필사본들은 대부분 오탈자가 매우 많아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해석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이런 작업을 통해 완성된 것이 바로 細井에 의한 출판본의 저본이 된 『秘訣輯

“이상은 鮎貝房之進씨 소장본으로부터 복사함. 大正 2년(1913) 3월(右鮎貝房之進氏藏本ニヨリ複寫ス 大正二年三月)”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판본을 ‘鮎貝本’이라고 부르는 데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단, 鮎貝의 해제와 필사본을 복사하여 유포한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이를테면 백승중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사이사이에 있는 메모들을 鮎貝가 남긴 것으로 보았으나, 그 메모들은 부산대학교 소장 등사본과 그것을 다시 복사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에서만 발견되며, 여타의 등사본들에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메모는 鮎貝가 아닌 제3의 인물이 등사 이후 별도의 필기부로 기입한 것으로 보인다.

30)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목록에 의한. 복사시기는 1984년으로 되어 있으며, 원본에는 없는 『鄭鑑錄』이라는 제목의 표지로 묶여 있다.

31) 이 두 판본의 확인은 東京大에 재학 중인 박병도의 도움을 받았다.

32) 이 이본 구절들은 제목을 적시하지 않고 “一曰”이라는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그 내용은 細井의 “擬似稿本”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필자가 검토한 어떤 판본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33) 박해선, 앞의 책, 298면.

錄』(奎7568)이었다. 이것은 鮎貝本의 복사본들을 통해 이루어진 수정사항들이 반영되어 있는 판본이다. 뿐만 아니라 이 필사본에도 오자들의 수정이 이루어진 흔적이 있는데, 이 ‘최종교정’은 細井의 출판본에만 모두 반영되어 있다.³⁴⁾ 또한 細井는 Jorgensen의 텍스트 26-32에 해당하는 “擬似稿本”의 경우도 의미가 잘 통하지 않을 정도로 오자가 많아서 출판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토로하고 있다.

영역본은 이처럼 비교적 철저한 교정을 거친 출판본을 대본으로 하고 있다. 이 선택 자체는 적절하다고 생각되나, 몇 가지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출판본의 편집자인 細井가 원문의 교정 과정에서 자의적인 수정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박해선은 여타의 판본들에서 “곡물 씨앗은 三豊에서 구하고, 사람 씨앗은 兩白에서 구한다(求穀種於三豊, 求人種於兩白)”라고 되어 있는 구절이 細井本에서는 “곡물 씨앗을 兩白에서 구한다(求穀種於兩白)”로 축약되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³⁵⁾ 이것이 단순한 실수였는지 의도적인 수정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求人種於兩白”의 예언은 전근대의 變亂이나 식민지시기 이주운동 및 신종교운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주제이므로, 번역본에서 이 부분을 역주 등을 통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실수다.

둘째는 이와는 정반대의 사례로, 細井本의 명백한 오류를 독자적으로 번역한 경우가 있다. 일례로 앞서 언급한 구절이 “擬似稿本”에 속하는 텍스트 26에서는 “夾穀種於三豊, 求人種於兩白峯”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판본들과 비교해 볼 때 “夾”은 분명 “求”의 오기다. 그러나 역자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夾”을 “smuggle”로 무리하게 옮겼다. 이런 실수는 단일 판본만을 이용하는 번역에서 피하기 힘들다.

셋째는 보다 중대한 문제다. 細井의 출판본은 전근대 한국의 예언서 연구에 있어 어느 정도의 대표성을 가지는 것인가? 분명 이 판본은 지금까지 『鄭鑑錄』

34) 흥미롭게도 같은 해에 출간된 金用柱 출판본의 해당 부분에는 오자 교정과 주석 추가 등 『秘訣輯錄』 작성 이전의 수정사항이 모두 반영되어 있지만, 이후 ‘최종교정’ 단계의 수정 내용은 일부만이 적용되어 있다. 아마도 규장각본 『秘訣輯錄』이 細井의 원고이고, 金用柱는 이와는 별개의 鮎貝本 가운데 하나를 교정하여 이용했을 것이다.

35) 박해선, 앞의 책, 305면. 해당 구절은 필사본 『秘訣輯錄』에도 원래의 형태로 되어 있으나, 오직 출판본에서만 축약되어 있다.

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이 책이 편집될 1910년대 당시에 수집된 수많은 다른 판본들의 존재를 알고 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것으로 幣原坦가 수집한 『鄭鑑錄』(東洋文庫 VII-3-132)과 淺見倫太郎가 수집한 『諸家秘說』(UC Berkeley Asami library 소장)을 들 수 있겠다.

먼저 今西가 해제를 작성한 幣原本은 「鄭鑑錄」의 일종으로 분류될 수 있는 「地理問答」이라는 제목의 대화 형식 예언서와 그 외 20여 종에 달하는 짧은 문서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細井本에 포함된 것들과 유사한 장르에 속하는 것도 있지만, 중복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細井本과 전혀 다른 계통의 짧은 시들과, 그림이 첨부된 占法書들로 이루어져 있다. 「地理問答」 또한 細井本の 「鑑訣」과 유사한 구성을 가지고 있으나 세부 내용에 큰 차이가 있어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18편의 텍스트로 이루어진 『諸家秘說』에도 정씨와 이씨의 대화가 세 편이나 수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李鄭遊山論」이라는 제목이 붙은 2편은 「鑑訣」과 형식이 유사하지만 내용이 크게 다르고, 「李鄭求山論」은 완전히 다른 형식이다. 전자가 이씨 형제들의 이름이 소개된 후, 곧바로 정씨와 함께 금강산에 올라 대화가 시작되는 반면, 후자는 이씨 형제의 조상에 대한 내용으로부터 시작되어 중국에서 전란을 피해 유랑하던 정씨를 만나 조선으로 돌아오게 된되면서 대화가 시작된다.³⁶⁾ 이후의 대화 내용이나 포함되어 있는 예언들 또한 전혀 다르다.

이 두 번째 형식의 텍스트들은 「鄭鑑錄」에 대한 역사적 연구에서 대단히 중요한 실마리이다. 전근대 자료에서 예언서에 대한 서술은 대체로 단편적이고, 「鄭鑑錄」의 내용에 대한 언급은 더욱 적다. 그 가운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임금이 말했다. “그 글의 첫머리가 어떻게 되던가?”

金鍾秀가 말했다. “그 첫머리가 ‘文文山의 친구 李泌’이라는 글로 시작되었습니다.”³⁷⁾

우리 태조의 조상인 李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중국에 들어갔다가 鳳凰城에 이

36) 이런 형식의 텍스트는 細井本에는 없고, 金用柱의 출판본에서만 두 편이 발견된다.

37) 『承政院日記』 정조 11년(1787) 7월 15일 “上曰 其書起頭云何 鍾秀曰 其起頭 則以文文山之友李泌爲辭矣”

르러 五季의 난을 피하여 동쪽으로 오던 浙人 鄭戡을 만났다. 李沁은 그가 異人이라는 것을 알고, 그와 함께 돌아와 香麟山에 들어가서 東國 산천의 氣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두루 논했다. “王氏는 송악에 도읍하고, 이씨는 한양에 도읍하고, 정씨는 계룡산에 도읍하고, 조씨는 가야산에 도읍하고, 범씨가 칠산에 도읍하는 데서 끝난다.” 이것이 이른바 『香麟山總論』이다.³⁸⁾

李沁 또는 李泌이 등장하는 대화형식의 예언서라는 점에서 이들 자료에서 언급되는 문서는 분명 오늘날 「鄭鑑錄」이라 불리는 텍스트의 일종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판본들에서 文文山이라는 인물이나 香麟山이라는 장소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또한 「鄭鑑錄」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알려져 있는 十勝地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전근대 자료에서 十勝地에 대한 전승은 南師古와 관련하여 거론되며, 그것이 「鄭鑑錄」 계통의 텍스트와 연관되는 서술은 주로 근대 이후에 등장한다.

그런데 그동안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鄭鑑錄」의 몇몇 판본에서 이 두 키워드는 유사한 방식으로 강조된다. 이들 자료에서 李沁은 宋代의 실존인물인 文天祥과 만나 地理를 배운 것으로 되어 있다. 文山은 文天祥의 號다.³⁹⁾ 그리고 香麟山은 새로운 왕조를 열기 위해 이씨의 조상이 매장되어야 할 장소로 지정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장소는 전주 이씨의 시조인 李翰의 묘소가 있는 오늘날의 麒麟峰을 가리키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 앞서 언급한 두 판본 가운데 『諸家秘說』의 「李鄭求山論」, 그리고 이와 유사한 구성으로 이루어진 金用柱本 『鑑寅錄』의 두 텍스트는 黃玳이 요약한 『香麟山總論』과 대략적으로 일치하는 서사 전개를 보인다. 그러나 十勝地가 전혀 언급되지 않는 등 일반적으로 알려진 「鄭鑑錄」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조선후기 당시 이씨와 정씨의 문답 형식 예언서(즉, '좁은

38) 『梧下記聞』首筆(1894년) 5월 12일 “曰 我太祖之先 有李沁者 入中國 至鳳凰城 遇浙人鄭戡 避五季亂東出 沁知其異人 與之還 上香麟山 歷論東國山川氣數 以爲 王氏都崧岳 李氏都漢陽 鄭氏都雞籠山 趙氏都伽倻山 范氏之七山 終焉 此所謂香麟山總論也”

39) 『鑑寅錄』(金用柱本) 「鄭李堪輿論」 “李沁 淵之七代孫也 與文天祥 學地理後 遇鄭勤 周踏 大界”; 『鑑寅錄』(金用柱本) 「鄭堪問答」 “沁 與文天祥 學地理之妙 留在中國七年”; 『鄭鑑錄』(幣原本) 「地理問答」 “沁與文天祐爲友 學地理之妙” 文天祐 또한 송대의 실존인물로 文天祥의 동생이다.

의미'의 『鄭鑑錄』)에는 전혀 다른 두 부류의 텍스트들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諸家秘說』에 포함된 텍스트들의 제목을 바탕으로 이들을 求山論系와 遊山論系로 구분해 보도록 하자. 전자는 이씨 형제들의 선조들의 내력과 그들이 중국에서 鄭鑑과 만나게 된 과정을 서술하고 있으며, 대화 장소는 香麟山이다. 후자는 등장인물들의 내력에 대한 서술은 극도로 생략되어 있고, 대화 장소 또한 金剛山, 三角山 등으로 옮겨진다. 十勝地에 대한 강조는 이 유형의 판본들에서만 발견된다. 이 가운데 주로 鮎貝本이나 그것을 교정한 細井本을 바탕으로 한 현행본들은 遊山論系만을 포함하고 있으나, 전근대의 기록들에서는 求山論系의 요소들이 주로 언급된다. 이 차이는 설명되어야만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幣原本 『鄭鑑錄』의 『地理問答』은 대단히 독특한 판본이다. 이 텍스트는 전체적으로는 遊山論系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도입부에 李沆과 鄭勸의 만남 과정을 비롯한 求山論系의 내용이 축약된 형태로 편집되어 있다. 따라서 이것은 求山論系와 遊山論系의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던 편집자에 의한 작품으로 판단된다.

근대 출판본들에 포함된 『鄭鑑錄』 이외의 다른 텍스트들에 대해서도 이런 식의 비교가 가능하다. 특히 동일한 저자(格庵, 北窓, 道誥 등)에 가탁된 유사한 형태의 이본들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데 이런 접근은 유용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서술이 아닌 일부 텍스트들, 이를테면 “路程記”라는 제목이 붙은 문서들(Jorgensen의 텍스트 15, 16), 정치적 예언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보이는 術法書들(Jorgensen의 텍스트 17) 등의 성격을 밝히는 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이런 유형의 문서들은 1910년대의 다른 컬렉션들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영역본이 20세기에 편집된 단일 출판본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은 아쉽다. 물론 판본 연구는 아직 초보 단계고, 한국 밖에 소장된 대부분의 필사본들이 비교적 최근에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이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이후의 연구자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대목이다.

5. 근대 출판본들과 전근대 파편들

Jorgensen의 서문에서 특히 흥미로운 부분은 전근대 한국의 정치적 사건들에 서 언급된 예언들을 현행본 『鄭鑑錄』의 텍스트와 대응시켜 분석한 것이다. 그는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면 김탁의 논의를 시대별로 따라가며 확장하고 있다.⁴⁰⁾ 17세기 이래의 變亂 訊問 자료들에서는 역모 혐의자들의 진술을 통해 당시에 유행하던 다양한 예언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일부는 당대인들이 소지하고 있었던 책의 내용이었고, 다른 것들은 구전된 것이었으며, 드물게는 관련자들에 의해 창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들 예언은 대부분 단편적이며 근대 출판본들에서와 같은 완전한 텍스트의 형태로 전해지는 것은 극히 드물다. 이들 예언 파편들이 현행본 예언서들과 어떤 관계인지는 중요한 문제다. 현행본 예언서들 대부분은 성립 연대가 불분명하나, 19세기 이후의 사건이나 지명들을 반영하는 듯한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등 그렇게까지 오래된 텍스트로 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18세기 이전의 자료에서 현행본과 유사하거나 일치하는 구절이 나타난다.

이런 모순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첫째, 상당히 이른 시기에 현행본들의 초기 형태(proto type)가 존재했고, 이것이 20세기에 이르러 출판본으로 고정되기 이전까지 유동적인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가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현전하는 필사본 가운데 같은 계통의 텍스트들에마져 큰 차이가 발견되는 것은 이런 유동성을 잘 보여준다. 둘째, 현행본의 저자들이 이미 지나간 사건들을 모호한 암호로 기술하고, 여기에 새로운 예언을 추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과거의 사건 가운데 예언과 일치하는 것이 있다면 예언서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졌을 것이다. 만약 두 부류의 예언(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정당화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견)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각 예언서의 형성 시기를 추정하는 일도 가능할 것이다. 셋째, 각 예언에는 비교적 고정된 ‘형식’들이 존재했고, 시

40) 이 주제에 대한 김탁의 두 책 가운데 Jorgensen이 참조하고 있는 것은 2005년에 발간된 대중서 버전이다. 2016년에 발간된 두 권짜리 연구서는 이 책과 관점을 공유하고 있으나 방대한 자료가 추가되어 있다. 두 책의 서지는 이 글의 각주 1) 참조.

기에 따라 그 '내용'만이 변화했을 가능성이다. 일례로 몇몇 텍스트에서는 조선 왕조의 수명을 예측하는 동일한 구절이 판본마다 300년, 400년, 500년 등으로 수정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마도 이 세 가지 모두였을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은 개별 텍스트의 판본을 계통 별로 비교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전근대 파편과의 비교는 어느 시대에 어떤 예언이 등장했고,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필 수 있는 유용한 작업이다. 그러나 이 비교에는 중요한 난점이 있다. 전근대 자료에서는 현행본 텍스트들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제목들, 이를테면 『鄭鑑錄』, 『南師古秘記』, 『道說秘記』와 같은 것들이 언급된다. 그런데 단편적으로 언급되는 이들의 내용은 현행본과 크게 다르다.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살펴보자. 문헌자료에서 『鄭鑑錄』이 처음으로 언급되는 것은 1739년의 일이다.⁴¹⁾ 이 해에 함경도의 李濱 등 다수의 북방 변경 주민이 백두산 아래 백여 개의 마을과 鐵擁城이 있다는 말을 믿고 국경을 넘었다는 이유로 체포당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탐색하는 鐵擁城이 “別乾坤”과 같은 곳이며, 그 우두머리는 金居士로 조선이나 청의 통치를 받지 않는 영역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鄭鑑錄』, 『歷年記』 등의 비기를 믿고 월경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⁴²⁾ 현행본의 내용에 친숙한 독자라면 아마도 여기에서 위화감을 느낄 것이다. 『鄭鑑錄』에는 분명 이주를 선동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은 十勝地를 비롯한 한반도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북방과는 관련이 없다. 또한 여기에서는 현행본의 핵심 주제 중 하나인 鄭氏 真人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대신 金居士라는 인물이 강조되고 있다.

『鄭鑑錄』에 내용에 대한 다른 전근대의 단편들도 현행본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1785년과 1812년의 반란 시도에서는 공통적으로 조선왕조가 망

41) 『承政院日記』 英祖 15년(1739) 5월 15일; 6월 9일; 6월 10일. 이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인 5월 15일자 기사에는 이 책의 제목이 “正鑑錄”으로 표기되어 있어, 예언 내용의 일부가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에서는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다.

42) 『承政院日記』 영조 15년(1739) 5월 10일; 5월 15일; 892책, 영조 15년(1739) 6월 9일; 6월 10일; 6월 13일; 『備邊司謄錄』 영조 15년(1739) 6월 15일; 『承政院日記』 영조 15년(1739) 7월 17일; 7월 19일; 7월 20일; 『備邊司謄錄』 영조 15년(1739) 7월 30일; 『英祖實錄』 권50, 영조 15년(1739) 8월 庚辰(6일).

할 때 나라가 셋으로 나누어졌다가 다시 통일될 것이라는 예언이 『鄭鑑錄』의 내용으로서 거론되고 있다.⁴³⁾ 김탁은 현행본 가운데 이에 대응하는 구절을 네 가지 제시하고 있으나, 모두 ‘좁은 의미’의 『鄭鑑錄』이 아닌 다른 텍스트에서 나오는 글이다.⁴⁴⁾ 이들 자료에서 『鄭鑑錄』이 다른 여러 예언서 가운데 하나, 즉 ‘좁은 의미’에서 언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차이는 무시할 수 없다.⁴⁵⁾

『鄭鑑錄』 이외의 텍스트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1733년 자료에서 언급되는 “南師古의 秘記”에는 “蜂目將軍”이라는 독특한 단어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는데,⁴⁶⁾ 현행본 가운데 『南師古秘訣』이라는 이름이 붙은 문서(Jorgensen의 텍스트 10)에는 이런 표현이 없지만, 無學의 이름이 붙은 필사본에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는 『五百論史』(Jorgensen의 텍스트 6)에는 정확히 같은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⁴⁷⁾ 이것은 예언 파편이 특정한 텍스트에 ‘부착’되어서 전승되기보다는 여러 텍스트를 ‘ 옮겨 다녔을 ’ 가능성을 시사한다.

물론 이들 사례와는 달리 전근대 자료와 현행본이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 일례로 1748년 자료에서 언급된 『道說秘記』는 비슷한 제목(『道說秘記』, 『道說記』, 『道說密記』 등)으로 인용된 고려시대 자료들과는 전혀 다르지만, 『道說秘訣』이라는 제목의 현행본(Jorgensen의 텍스트 8)과는 대단히 유사한 구절들을 포함하고 있다.

43) Jorgensen, op. cit., pp.159-160, p.172.

44) 김탁, 2016 『조선의 예언사상』 上, 북코리아, 446면.

45) 단, 『鄭鑑錄』의 널리 알려진 판본(『鑑訣』)에서 조선왕조가 멸망할 때의 상황에 대한 기술이 극히 축소되어 있다는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는 다른 몇몇 판본들(『諸家秘說』에 포함된 두 번째 『李鄭遊山論』, 그리고 鶴谷誠隆가 인용한 『李沁鄭鑑山水秘錄』 등)에서는 나라가 셋으로 갈라질 것이며, 정씨는 그 가운데 하나의 지도자라는 점이 암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46) 『元八推案』 同日(1733년 8월 27일) 罪人太眞更推 “所謂南師古秘記句語中 只記 白猪按答 蜂目將軍 僧入丙都 路塞烟絕等句而已”

47) 이 『南師古秘訣』은 20세기에 유행한 『格庵遺錄』과는 별개의 글이다. 格庵은 南師古의 호이지만, 이 『格庵遺錄』은 전도관 등 기독교계 신종교에 속한 인사들에 의해 해방 이후에 편집된 것으로 보인다. 최중현, 2008 『저본들과의 비교에서 드러나는 『격암유록』 편집내역』 『신종교연구』 19.

道誥에게 秘記가 있다. (중략) 또 이런 말이 있다. “倭와 비슷하지만 倭가 아닌 것이 남쪽에서 오는데, 산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弓弓이 이롭다.”⁴⁸⁾

산은 이롭지 않고 물도 이롭지 않다. 弓弓이 이롭다. (중략) 胡와 비슷하지만 倭가 아닌 것이 푸른 옷을 입고 남쪽에서 (온다).⁴⁹⁾

그러나 이런 사례 또한 道誥 계열의 문서와 이들 구절들 사이의 필연적인 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倭와 비슷하지만 倭가 아니다(似倭非倭)”라는 구절은 道誥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 사건들에서도 유언비어의 내용으로 언급되고 있다.⁵⁰⁾ “弓弓”에 대한 예언은 더욱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變亂 기록을 포함한 18-19세기의 자료에서 폭넓게 언급되며, 李圭景은 『五洲衍文長箋散稿』에 포함된 한 글에서 이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기도 했다.⁵¹⁾ 뿐만 아니라 『鄭鑑錄』 여러 판본들에서도 “弓弓”과 그 변형들(“兩弓”, “弓乙”, “弓弓乙乙” 등)은 중요한 주제다. 무엇보다 우리는 “弓弓”과 그 변형인 “弓乙”이 훗날 東學의 핵심적인 상징이 되었음을 알고 있다.⁵²⁾

이처럼 전근대 자료와의 비교는 현행본 『鄭鑑錄』에 포함된 문서들의 형성 과정과 전승 관계를 밝히는 데 있어 많은 생각할 거리를 제시해 준다. 그런 점에서 Jorgensen의 서론은 여기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아쉽다. 만약 이런 역사적 분석이 후반부의 역주에 포함되었다면 번역의 가치는 더욱 높아졌을 것이다. 일례로 그는 역주 69)에서 “弓弓”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글자의 형태에 대한 분석과 風水의 용어들을 동원하고 있는데, 이런 해석은 그 자체로서는 논의할 가치

48) 『罪人之曙推案』(1748년 5월 23일) 推考次罪人哲澤年四十 “道誥有秘記矣(중략) 似倭非倭 自南而來 非山非水 利於弓弓”

49) 『道誥秘訣』(奎12373) “山不利水不利 利於弓弓(중략) 似胡非倭 着青衣而自南”

50) 『正祖實錄』 권19, 正祖 9년(1785) 3월 乙亥(26일) “似倭非倭之船 自東萊出來”; 권23, 正祖 11년(1787) 6월 庚戌(14일) “近聞流行之說曰 青衣自南來 似倭而非倭 不利於山 不利於水 利於弓弓”

51) 『五洲衍文長箋散稿』 권35, 『樂土可作菟裘辨證說』.

52) 『東經大全』 『布德門』 “吾有靈符 其名仙藥 其形太極 又形弓弓”; 『修德文』 “胸藏不死之藥 弓乙其形”

가 있지만 조선후기 당시의 자료에서 나타나는 이해 방식들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⁵³⁾

6. 맺음말

이 번역본은 그 성과에도 불구하고 ‘넓은 의미’의 鄭鑑錄 개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다는 점, 단일 판본만을 저본으로 사용했다는 점, 전근대 자료와의 비교가 기존 논의를 단순히 반복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보인다. 그러나 이 글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이 번역의 가치를 심각하게 떨어트리지는 않는다. 이 문제들은 지금까지 전근대 한국의 예언서에 대한 연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난점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이 향후 한국학의 국제적, 학제간 연구에서 전근대 예언서에 대한 논의를 한층 심화시킬 것이라 기대한다.

주제어 : 정감록, 도참, 정치적 예언, 변란, 신종교 운동

53) Jorgensen, op. cit., pp.369-370.